

문학 개념어 공부하기 : '관념적'
반말주의, 예의 없게 느껴져도 이해해주기!

표준국어대사전 '관념적' 검색 결과(20210611)

〔I〕 「명사」
 관념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예) 그는 매사를 관념적으로 판단한다.

〔II〕 「관형사」
 관념에만 사로잡혀 있는.
 예) 관념적 사랑.

표준국어대사전 '관념(관념²)' 검색 결과(20210611)

「명사」

「1」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예) 잘못된 시간 관념을 갖다.
 예) 넓은 관념을 극복하다.
 예) 이 식당의 종업원은 위생에 대한 관념이 철저하지 못하다.

「2」 현실에 의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
 예) 관념에 빠지다.

「3」 『불교』 마음을 가라앉혀 부처나 진리를 관찰하고 생각함.
 「4」 『심리』 사고(思考)의 대상이 되는 의식의 내용, 심적 형상(心的形象)을 통틀어 이르는 말.
 「5」 『철학』 어떤 대상에 관한 인식이나 의식 내용.

+) 수능 국어를 준비할 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적극 활용하자. 특히 문학과 문법 공부할 때!

'관념적'과 '관념'의 사전적 의미다. 이해가 되는가? 이 정의만으로 선지에 등장한 '관념적'이라는 단어를 처리할 수 있는가?

나는 문학에서의 기출 분석을 선지 위주로 한다. 선지에 등장한 개념어가 다른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판단하도록 했는지 생각하자. 물론 이 판단의 대상은 정답선지를 대상으로 하고, 너무 부족할 때만 조심스럽게 오답선지를 건드리도록 하자.

2022학년도 6월 18~21 지문 中 일부

나는 다시 기범이 지결했던 과거의 요설들이 생각한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혔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그리고 평가원이 제시한 이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18번 문항의 정답 선지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였다. 선지를 뜯어보자.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 맞다. 서술자가 ‘나’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요즘 트렌드다. ~~시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풀어서 주는 것.

‘인물에 대한 평가를’

- 맞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등 ‘기범’이라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메인 포인트**다. 볼드체에 밑줄 너무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나는데 난 옛날 사람 아니다. 컬러를 안 쓰고 강조할 만한 방법이 이거 말고는 생각이 안난다.

- 농담은 여기까지. 어찌 됐든 평가원은 이 선지를 정답으로 출제했다. EBS 해설에서는 ‘서술자가 자신의 추상적 생각을 관념적으로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이유와 판단의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 설명을 해주자면, ‘나’는 ‘기범’에 대해 서술할 때 기범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같은 묘사적 서술을 하지 않았다. 이때 묘사적 서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림 그리듯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묘사’와 ‘묘사적’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수험생 선배로서 잠깐 조언을 해주기 위해 아래에 단어들을 나열해 보았다.

관념적, 추상적
 구체적, 사실적, 감각적, 경험적

앞으로 각 줄에 있는 단어들끼리는 비슷한 의미, 윗줄과 아랫줄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라고 생각해도 좋다. 물론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의미가 다를 수 있으나 그걸 깊게 파고들어서 구분 짓도록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대신 그 줄에 하나만 알아도 이해하기 쉽잖아.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앞 지문을 읽고, 이 서술이 관념적 서술임을 인지하고 가자.

다른 기출 사례도 살펴보자. 21학년도 9월 평가원이다.

2021학년도 9월 38~42 지문 中 일부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운논다 훈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중략)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므리 갑고자 호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평가원이 제시한 이 부분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은 선지는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보통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과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을 각각 ‘경험적 공간’, ‘관념적 공간’으로 읽고 이해하고 풀었던 것 같다. <제1수>의 ‘산수 간 ~ 뛰집’은 화자가 사는 공간이라서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다. 경험적 공간이기도

하다. <제6수>의 '강산'은 경험적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보고 오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 다만, 그 '강산'이라는 시어를 화자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보면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웠느냐

- 강산을 즐기는 게 내 분수, 내 힘, 내 덕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지?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다. 많이 벗어나진 않을 거야.

임금님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 임금님 덕분에 강산을 즐기는 거였군요! 임금님 은혜에 감사!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그럴 수 없다

-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갖지도 못할 정도다는 의미겠지.

'강산'이라는 공간을 통해 '님군 은혜'라는 관념을 더 느끼게 되었으니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 받아들여야지.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26~29 지문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여……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 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떨거니 섰다.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깔깔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이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 그려.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핏줄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

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건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중략)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건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매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위락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이다. 마침 어린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매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이 글의 내용과 관계 없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기호들은 지웠다.

28. 어린아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의 정답 선지는

어린아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이다.

평가원이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이에 맞춰서 공부해보자. 우리는 '관념적'이 뭔지 공부하려는 거니까 어린아이만. 다른 건 지문 보면서 이 건 왜 지문이란 연결 안 하냐고? 굳이 내가 여기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선지만 봤을 때, 선지는 어린아이와 어른을 대비시키고 있다.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사람이라고 한다. 체득이란 무엇이나? 뭔가를 알고 이해한 사람이 그것을 몸에 익혀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근데 그런 어른과 대비된 '관념적으로 받아들인 어린아이'는 몸에 익혀서 실천으로 옮기지 않은,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겠지. 평가원은 '관념적'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한 거고.

2014학년도 9월B 41~43 지문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닌대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위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 최인훈, 광장 -

윗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 정답 선지로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 제시되었다.

우선, 지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처음에 나오는 큰따옴표부터 끝까지 이 지문은 명준의 생각, 상상 즉 의식에 초점을 맞춘 지문이다. 처음 부분은 두 사람의 대화 아니냐고? 그 아래에 '~말할 것이다.' 랑 '~짱긱하고 웃겠지.' 부분, 다시 읽고 와. 명준의 상상이다.

선지 쪼개보자.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 위에서 설명했다.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메인 포인트. 밑줄이랑 볼드체 안 할 거야. 사실 앞에서부터 쪽 읽었으면 아, 이거 관념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게. 설명을 어떻게 말로 풀어서 써야할지 모르겠어. 근데, 설명이 더 필요할까? 내가 생각하는 너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과대평가라고? 아니야... 아닐 거야. ㅋㅋㅋㅋ
-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수능 국어가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바뀌고 난 후로는 문학에서 '~적 인식'이라는 말이 쓰인 게 이거 하나야. 내가 못 찾은 거 아니냐고? 모르겠네. 아닐거야. 아니겠지...?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나고? '관념적 인식'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어. 인식이 관념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평가원이 ~적 인식이라는 말을 또 어떻게 썼나 찾아봤는데 없었어. 하고 싶은 말? ~적 인식, 특히 관념적 인식이라는 말을 그렇게 깊게 파고들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말.
- 진짜 포인트. 글을 읽어 봐. 그냥 계속 상상, 생각만 나오지? 이게 진짜 '관념적'인 서술이야. 이 글 여러 번 읽었는데, 진짜 너무 관념적이야. 앞으로 관념적이라는 말 보면 이 글 잠깐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건데, 이거는 '관념적'이 포함된 선지가 오답으로 출제된 경우야. 오답 선지를 왜 보냐고? 반대되는 거 보면서 제대로 공부하고 가야지. 그리고 애는 오답 근거가 좀 명확하다고 느껴서 가져왔어.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몹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중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푹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긱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찢끔찢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객객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씹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술.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군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단.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 눈에 보여 주는 것 —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돌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길. 매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전략)

[가]

봄날이 따뜻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울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춥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나]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승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회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후략)

- 정훈, 「탄궁가(嘆窮歌)」 -

전략, 중략, 후략 부분은 내가 지웠어. 평가원이 [가]와 [나] 부분에 대한 올바른 특징을 물었을 때,

[가]는 관념적인 문제를, [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이 선지가 오답이었어. 우선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서 F인 것도 맞아. 근데, [가]에 드러난 문제들을 봐. 씨를 쥐가 먹고, 곡물은 부치고(모자라다는 의미야. '힘이 부치다'라는 표현 들어 봤지?), 춥고 주리고 등등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지. 이 문제들이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건 관념적이지 않은 것들이야. 이제 '관념적'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좀 알겠어?

정리

다시 사전적 정의를 보고 오도록 하자. 그냥 처음 봤을 때보다는 더 이해가 될까? 그랬으면 좋겠다.

사전적 의미만으로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선지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 학생도 있을 테고 이 글을 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질문하면 말로 설명해줄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이 '관념적'을 못 처리하는 이유는 '관념'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관념적, 추상적, 선형적, 구체적, 경험적, 사실적 등 이런 단어들은 사전을 통해 우선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기출 지문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이것이 내 문학 기출 분석이다.

원하는 다른 개념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줘. 찾아서 정리해줄게. 그게 내가 돈 받는 이유지.